

시중은행 대출 문턱 여전히 높다

제2금융권도 대출강화... 중소기업 신용위험 커져 "중국인 관광객 줄어 서비스업 타격"

올해 4분기에도 국내은행의 대출 문턱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용카드는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대출 태도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국내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18)보다 3포인트 오른 -15로 나타났다. 3분기에 비해 다소 나아졌으나 여전히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출태도지수는 국내은행을 비롯해 상호저축은행, 신용카드사, 생명보험사·상호금융조합 등 모두 199개 금융기관의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지수가 낮을수록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한다. 0을 기준으로 지수가 마이너스(-)이면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강화, 플러스(+)이면 대출조건 완화 쪽이 더 많다는 얘기다.

특히 가계대출에 대한 강화기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30으로 전분기(-40)보다 완화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3분기 -7에서 4분기 -20으로 크게 낮아졌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예고된 만큼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가계 주택대출 수요도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대출 수요지수는 3분기 -3에서 4분기 -20으로 17포인트 줄었다. 은행들이 전망하는 가계신용 위험 지수는 20으로 3분기(23)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득개선이 부진한 가운데 향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빚 상황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국내은행의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차이를 보였다. 대기업의 대출태도지수는 4분기 0으로 전분기(-3)보다 3포인트 올랐으나, 중소기업은 -7로 전분기(-3)보다 4포인트 내려갔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인 관광객 감소의 여파로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일부 서비스업의 신용위험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3분기 13에서 4분기 17로 확대됐다.

제2금융권 대출도 강화될 전망이다. 상호저축은행은 -19로 전분기(-15)보다 낮아졌고, 상호금융조합(-40)과 생

명보험사(-17)도 강화된 태도를 나타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고금리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추가 총담금 적립률 상향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된 영향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대출태도 지수가 전분기 13에서 4분기 19로 확대됐다.

카드사들은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탓에 자금수요도 옮겨갈 것으로 내다봤다. 카드사의 대출태도지수는 6으로 전분기(0)보다 6포인트 늘었다.

카드사들이 '대출 문'을 넓히는 배경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유대 가맹점 확대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뉴스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IMF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기념사진 찍기에 앞서 각국대표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방송 공공성·독립성 강화"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 국정감사에서 강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송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연말로 예정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및 종편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고, 종편 등에 대한 재승인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시장의 실현을 약속하면서 "방송통신 분야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응하는 등 공정한 방송통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흡수병식의 남품업체에 대한 방송제작비 떠넘기기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통신사와 포털 등이 중소기업자를 부담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세부기준을 정했다"고 전했다. /뉴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달부터 단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판기 유통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류 방송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가 간 방송콘텐츠 공동 제작 지원, 새로운 방송콘텐츠 시장 개척 등 국제협력력을 강화하겠다"며 "광고총량제 이후의 방송광고에 대한 효과분석 등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지상파 UHD 방송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시 및 강원 지역 지상파방송사들의 UHD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이 새로운 방송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적절한 비식별 조치 등을 통해 빅데이터 등 데이터 기반 산업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인터넷 게시물 차단조치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윤리 등 디지털 시민의식을 고취해 방송통신이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케이블TV 요금, 지역별 최대 33.3% 높아

변재일 의원, "정당한 서비스 제공반대 촉구 약관 변경 명령을"

CT헬로비전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특정 지역의 요금체계의 금액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13일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MSO의 이용약관과 실제 요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특히 MSO사업자 중 방송사업매출액 기준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CT헬로비전의 경우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의 디지털케이블TV 요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33.3%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역의 CT헬로비전 디지털케이블TV 스탠다드 요금은 1만 8000원인데 비해 경북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의 요금은 2만 4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디지털케이블TV 베이직, 프리미엄 상품 요금을 다른 지역에 비해 20% 가량 비싸게 받았다.

CMB는 충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MB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베이직과 프리미엄 요금제로 구성하고 각각 1만5000원, 1만8000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공주시, 부여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보령시, 서천군으로 묶인 충남 일부 지역과 세종시에서만 베이직 1만8000원, 프리미엄 2만3000원을 받고 있다.

티브로드의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3개(이코노미·베이직·프리미엄)로 구성했으나,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에만 2개(기본형·고급형) 상품만 공급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와 달성군에 1만2000원 요금의 이코노미 상품을 제공하지 않아 해당 지역 소비자의 저렴한 상품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다.

달라이브는 서울 강남구 소비자에게만 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

달라이브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을 6개로 구성했으나, 서울 강남구에만 7개 상품으로 구성해 강남구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은 "소비자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금액에 따른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과징정통부장관은 MSO 사업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명령해 특정 지역의 폭리와 차별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한국지엠 군산공장, 청암산 가을 숲 체험활동 지원

한국지엠 군산공장(이하 한국지엠)이 1사산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청암산에서 '가을이 물든 청암산에서 놀자'라는 타이틀로 가을 숲 체험 행사에 협찬 지원한다.

이번행사는 한국지엠이 주최하고 (유)생태환경교육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군산시에서 후원하여 진행되며, 우리 지역이 자랑하는 명소 청암산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위한 '가을 숲 체험행사'를 청암산에서 등산객 및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4일 오후 2시부터(약 2시간 소요) 4팀으로 나누어 어린이 1500여명에게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수희 숲 해설 교육 전문 교사는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함께 사회공헌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암산 가을 숲 들여다보기"와 "신나는 생태놀이", "자연물 액자 만들기" 등 직접 숲 체험 활동시간으로 프로그램이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금융위, 은행의 부도업체 출국금지 요청권 폐지

여신거래업체가 부도 등으로 은행에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은행이 금융위에 출국금지 요청을 가능토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지적 등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 정비의 일환이며 대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요청한다.

은행계 발행실적 보고 의무 역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은행계 발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삭제토록 했다.

은행연합회에게 위탁한 경영공시 기준 마련 권한은 금융감독에게 위탁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젤Ⅲ 기준에 따라 중장기유동성비율과 레버리지비율 도입을 명시했다. 중장기유동성비율(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은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레버리지비율은 3%가 최치한도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12월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

